

[방산정보] 호주 유도미사일 및 포탄 국내 생산계획 발표

날짜 : '24년 10월 30일	무역관명 :	작성자 : 임형수	
	시드니	TEL : 61 2 8233 4012	EMAIL:hsyihm@kotra.org.au

□ 호주 정부, 향후 10년간 총 740억 호주달러 투자하여 미사일 등 유도무기 및 포탄 제조능력 키우기로

-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적으로 무기를 양산하기 위해 호주 유도무기 폭발물 기업(GWEO)에 10년간 총 A\$210억 호주달러(약 19조원, 이하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콘로이 장관은 호주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시대의 정점에 서있다”며 미사일 방어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보파트너인 미국, 일본, 한국과 협력해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사진출처- 호주 ADF] 2024 립괵(환태평양) 훈련기간 중 호주해군 HMAS 시드니호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고 있는 장면.

- 이를 위해 우선 3억 16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록히드 마틴과 다연장 유도

로켓 발사 시스템(GMLRS)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함.

- 이 공장에서는 2029년부터 연간 4천기의 GMLRS를 생산할 수 있게 됨. 이는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이자 호주 방위군 수요의 10배가 넘으며, 호주는 이를 자국군에 배치하는 한편 수출도 할 계획임.
- 또한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와 계약을 맺고 곡사포에 주로 사용되는 M795 포탄을 생산하기로 함.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호주는 연 10만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 앞서 호주는 70억 달러를 들여 미국으로부터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SM-6 미사일과 첨단 유도 기능을 갖춘 중거리 SM-2 블록C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함.
- 또한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와 호주에서 장거리 해상 타격 미사일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음.

□ 2024 호주 유도무기 및 폭발물 계획 발표: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청사진

- 호주의 알바니즈 정부는 향후 10년간 호주내 미사일 제조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2024 호주 유도무기 및 폭발물(GWED Plan)을 발표함.
- 이 계획은 주권적 제조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 2023년 국방 전략 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에서 지정한 6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2024년 국방 및 국방산업 전략에도 포함된 핵심 사항이라고 함.
- 이 계획은 또한 호주 국방 산업에 국내 미사일 및 탄약 생산 확대와 유도무기 및 폭발물 재고량 증대를 위한 명확한 역할을 제공한다고 하며, 이에 정부는 10년간 160억21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통합 투자 프로그램 예산의 5%에 해당함. 장거리 타격 및 미사일 방어와 같은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면, 총 580억74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주요 투자항목은 아래와 같음
 - 8억 5천만 달러: 2027년부터 뉴캐슬 근처 윌리엄타운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여 Kongsberg Defence Australia와 협력, 해상 및 합동 타격 미사일 제조.
 - 3,740만 달러: Lockheed Martin Australia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호주 내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 미사일 초도 배치 제조.

- 미국과 70억 달러 규모의 계약: Standard Missile 2 Block IIC 및 Standard Missile 6 장거리 미사일 획득.
- 1억 4천2백만 달러: 2025년부터 공급 예정인 합동 타격 미사일의 신속한 확보.
- 최대 6천만 달러: 5년에 걸쳐 극초음속 및 장거리 타격 능력 개발.
- 2천2백만 달러: 호주에서 로켓 모터 제조 시설 설립을 위한 옵션을 탐색.

□ 시사점

- 호주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국방력강화를 위한 무기를 자체 생산 하려는 의지를 보이도 있으며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육해공 안보 시스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무기, 장비에 대한 수입 및 국내 제조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미국산 무기와의 상호운용성과 신속한 납기 등 K방산의 경쟁력 홍보 등 필요.

끝.

자료원 : 호주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자료 종합